

“복잡한 등록·환급 절차”... ‘광주G-패스’ 이용 불편

‘대자보 도시’ 핵심 시책...1월 도입
어르신 교통비 반값 등 혜택 불구
디지털소외계층 이용 어려움 겪어
매달 ‘환급금 받기’ 처리 번거로워
市 “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지원”

광주광역시 ‘대·자·보(대중교통·자
전거·보행 중심) 도시’ 전환을 위해 올해
1월부터 시행에 나선 광주형 대중교통비
지원사업인 ‘광주G-패스’가 폭 넓은 할인
혜택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복잡한 등
록 절차와 환급 조치 방식으로 디지털 소
외계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
다.

특히 광주광역시가 이달부터 현금 없는
 시내버스를 시행하면서 교통카드가 생활
화된 가운데, G-패스 사용이 늘어날 것으
로 예상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
이다.

2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‘광주G-패
스’는 올해 1월부터 광주 시민을 대상으
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
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탄소배
출은 줄이고,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
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
이다.

G-패스는 시내버스·마을버스·도시철
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어린이 무료, 청소년
반값으로 할인하고, K-패스와 연계해
청년 30%, 성인 20%, 어르신 50%, 저소득
층 64%를 환급한다.

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K-패
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던 어린이·청소년
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, K-패스 사업을



광주G-패스 선불카드를 판매 중인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.

활용해 환급 혜택을 늘린 게 G-패스만의
특징이다.

대·자·보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
책으로 비춰지는 G-패스는 광주광역시가
이달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면
서 카드를 새로 발급하게 되는 시민들에
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.

실제 G-패스가 도입되면서 K-패스가
입자는 크게 늘고 있다. 지난해 9월 이후
월평균 3000여명씩 증가하던 K-패스가
입자 수는 G-패스 도입 후인 지난 1월과
2월 각각 1만741명, 1만2494명으로 대폭

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.

다만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면 즉시
할인되는 어린이·청소년과는 달리 청년·
성인·어르신·저소득의 경우 환급 방식으
로 혜택이 적용되며, 선불카드는 자동 환
급이 아닌 앱을 통한 수동 방식으로 환급
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
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진입장벽이
높다.

기존 K-패스 가입자는 자동으로 G-패
스 혜택이 적용되지만, 광주지역 지하철
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G-패스 선

불카드를 구입한 신규 가입자는 직접 등
록부터 매달 20~27일 사이 앱에서 ‘환급
금 받기’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
따른다.

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환급
조치되는 K-패스 가입자와는 달리 G-패
스 선불카드의 경우 환급액이 적립 마일
리지(쿠폰)로 제공되며 기간 내 환급받지
않으면 쿠폰이 이월 처리돼 다음 달에 재
발송되고, 두 달이 지난 미환급액은 소멸
처리된다.

이처럼 등록부터 환급까지 절차가 복잡

하다 보니 G-패스 선불카드 판매 지하철
역이나 편의점에는 어르신들의 문의가 끊
임없이 이어지고 있다.

금남로4가역의 한 역무원은 “카드를 구
매하고 등록을 어려워 하는 시민분들이
많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직접
등록까지 도와드리고 있다”며 “다만 환급
절차가 복잡해 환급 기간이 될 때면 역무
실에 찾아와 재차 방법을 물어보시는 어
르신들이 많다”고 말했다.

최근 G-패스카드를 구매했다는 정모
(73)씨는 “버스를 자주 타는데도 환급받
는 법을 몰라 사용을 못하고 있다”며 “좋은
제도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쓰기가 너
무 어렵다”고 불편을 토로했다.

이에 광주광역시는 어르신 등 디지털
소외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
한 홍보 활동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입
장이다.

광주광역시 관계자는 “정부 사업인 K-
패스를 이용하다 보니 시스템 개선에 한계
가 있다”며 “후불카드와는 달리 선불카드
는 환급액을 받을 통장이 없어 환급 방식
에 차이가 있다. 환급금이 소멸했다고 하
더라도 카드사에 연락해 환급금을 돌려받
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그러면서 “디지털 소외계층의 고충을
덜어드리기 위해 시청, 동 행정복지센터
등에서 어르신들의 G-패스 등록을 도와
드리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와 G-패
스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국토부에
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”며 “시민들의 불
편함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
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글·사진·정상이자 sangajeong@jnilbo.com

광주 제2순환도로서 시설물 충돌 후 차량 화재 발생

광주 남구 송암IC 요금소 주변에서 승
용차 한 대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화
재가 발생했다.

28일 남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
시11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동 제2
순환도로 송암IC 요금소 주변에서 승용
차 한 대가 중앙선 횡단 주변 도로 시설
물을 들이받아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

다.

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
27명과 장비 9대를 동원해 12분 만에 불
을 껐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
았다.

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
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.

이정준 기자



광주서 천만원 상당 에어컨 동배관 훔친 일당 ‘구속’

광주광역시의 공사현장에서 1000만원
상당의 에어컨 동배관을 훔친 50대 일당
이 구속됐다.

28일 광주 북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
벌법상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·B씨를
구속했다고 밝혔다. 이들은 지난 12일 오
전 5시30분께 북구 용두동의 한 공사현장
에 잠입해 1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동배

관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. 신고를 받고
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
적, 지난 25일 북구 중흥동의 한 숙박업
소에서 이들을 체포했다. A씨와 B씨는
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
으로 파악됐다.

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
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. 정승우 기자

DK 디케이 주식회사

봄, 공기의 새로운 정의
공간을 빛내는 선택

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
이제 걱정 없이,
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.

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
디케이 공기청정기·살균기

www.e-dk.co.kr
판매 및 A/S 문의 1544-1154